

민주주의와 평화

민주발자취걸음 24



|목차

1장 팀원 소개

2장 탐방 일정표

3장 평화 이야기

4장 사진첩



|팀원 소개



정윤희

팀장 및 콘텐츠 기획
어딘가 많이 허술한 편
SDGs에 관심이 있음



임진아

팀원 및 분쟁 조정
무뚝뚝한 감성쟁이



위다윤

팀원 및 서기, 일정 계획
조금 다혈질임
통계 분석 분야에 관심이
있음

탐방 일정표



제주 4.3 평화공원

위치 : 제주도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관람료 : 무료

휴관일 : 첫째, 셋째 월요일

이동수단 : 43-1/43-2 번 버스

관덕정

위치 : 제주도 제주시 관덕로
19(삼도이동)

관람료 : 일반, 청소년, 군인, 어린이
상이(도민 무료)

이동수단 : 43-2 번 버스



남북통합문화센터

위치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30-
260

관람료 : 무료

휴관일 : 월/일요일, 법정공휴일

탐방 일정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관람료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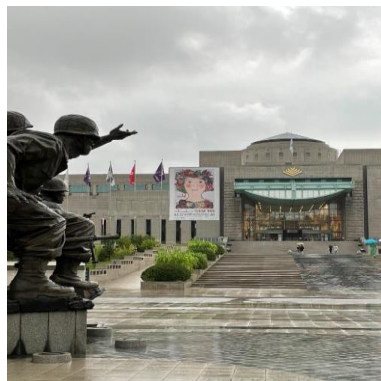
휴관일 :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전쟁기념관

위치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9

관람료 : 무료

휴관일 : 매주 월요일



파주 DMZ 평화관광

위치 :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53

관람료 : 연령 및 면제자 별 상이

휴무일 : 매주 월요일, 주중 공휴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이동수단 : 합정역 정류장 7300번 버스

탐방일정표



국립 6.25 남북자기념관

위치 :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53

관람료 : 무료

휴관일 : 매주 월요일, 주중 공휴일,
설날 및 추석 연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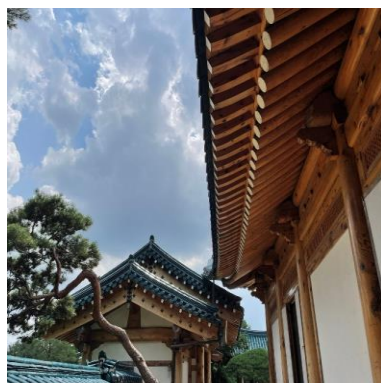
청와대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관람료 : 무료

휴관일 : 매주 화요일

관람 방법 : 사전 예약,
현장신청(대상자 및 수량 한정)



민주탐방 프롤로그 영상

<https://youtu.be/MV9nMKeyIEA>

| 평화 이야기



정윤희

평화는 참 다양한 것을 포함합니다.
인권이 지켜지는 세상, 무력이 없는 세상, 동식물들과 생태계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곳.
물론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이 안정적인 상태를 통해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당신에게 평화란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어느 날 제주에 총성과 구타 그리고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사건! 4.3사건이 발생했던 것이죠.

빨갱이라는 오명을 받고 무참히 희생당한 제주인들의 삶.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리도 짓밟게 한 것일까요?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해방이 되었던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결코 완전히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의 한반도로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죠.
미군정은 일제에 부역했던 경찰들을 다시 미군정 하에 두어 군정경찰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 군정경찰들이 청렴해서 제주의 질서를 잡아주었더라면 그나마 제주인들의 삶이 더 고달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바빴죠.

1947년 3월 1일 관덕정 앞 광장에서 3,1절 28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던 군중은 시가행진을 하며 가두시위에 돌입하였고, 이를 구경하던 어린아이가 기마경찰이 탄 말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기마경찰이 그냥 가려하자 일부 군중이 돌맹이를 던지며 쫓아갔고, 이를 경찰서 습격으로 오인한 경찰이 군중에게 총을 발포하여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죠.

이것이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일입니다.
혹시 아직 어지러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의 대응 또한 미흡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 평화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이끌어내는 밑거름이 되기에 그걸 핑계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시점으로 4.3을 바라볼까요? 미국입장에서 동아시아 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태평양을 장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친미국가여야 하죠. 그런데 한반도가 공산화된다면 일본이 공산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4.3사건에 미군정이 개입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광복 이후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자연스레 개입되었고, 그들의 패권 유지를 위함이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지요.

그렇다면 제주도에 있었던 좌익세력들을 쳐내려고 그렇게 반인륜적인 범죄를 지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맥락이 이어지는군요.

1947년 3월 10일, 제주도민들은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3월1일에 발생했던 사건에 항의하는 민·관 총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3월 13일까지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에 달하는 166개 기관 및 단체에서 파업에 동참한 것이죠.

당시 작성된 미군의 정보보고서에는 3.10 총파업에 “좌·우익이 공히 참가”하고 있으며, “제주도 인구의 70%가 좌익단체에 동조자이거나 관련이 있는 좌익분자의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정은 경찰의 발포에 대한 과오를 추궁하여 민심을 수습하는 게 아닌 좌익세력 척결에 주력하는 정책을 전개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제주도민들이 고문과 구금 등에 시달렸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미군정이 제주도민을 인간으로서 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간으로 대했다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오해를 하고 발포했다던 그 경찰과 돌맹이를 던졌던 일부 군중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좌파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무작정 탄압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전후하여 (2월 말에 남로당 제주도당 임원들의 회의를 통해 조직된) 350명의 무장대가 도내의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습격하였고, 경찰 4명과 민간인 8명, 무장대 2명이 사망했습니다.

| 평화 이야기

무장대는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 남한 단독선거 및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조국의 통일 독립, 반미 구국투쟁을 무장봉기의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미군정은 이를 응원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힘으로 진압한다는 방침을 내세웠고 도민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경찰력만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낀 미군정은 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과 평화협상을 진행하여 72시간 안에 전투를 완전히 중지할 것 등을 합의하였으나, 5월 1일 우익청년단체가 일으킨 '오라리 방화사건'으로 협상이 파기되었습니다.

이 당시 미군정은 그 사건이 우익청년들의 소행임을 알았지만 이를 무시고, 그 현장을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촬영하도록 하여 "제주도의 메이데이"라는 기록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무장대의 소행으로 조작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미디어 매체와 언론의 힘에 대해 주목하여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매체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이라고 믿게 하고, 공감을 얻어내며, 누군가의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을 지녔어요.

그런 영향력이 이렇게 올바르게 쓰이지 않게 사용되면 그 파급력 또한 엉뚱하고 부정적으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과 미디어 매체는 정의롭고 투명해야 하며 악한 영향력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가공되어야 해요.

1948년 5월 10일은 남한 단독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처리 되었고, 6월 23일에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9월 9일에는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 문제를 지역 문제가 아닌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10 18일에는 제주 해안 봉쇄, 11월 17일에는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 평화 이야기

이후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강경진압작전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어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고, 도민들은 살기 위하여 산으로 피신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무장대의 습격으로 민가가 불타고 주민들이 희생되기도 했던 그 당시는 상상만 해도 아비규환이 따로 없습니다.

1948년 12월 31일이 되어서야 계엄령이 해제되었고, 이후 귀순하면 용서한다는 사면정책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하산하였습니다.

1929년 5월 10일 재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데 이어 6월에 무장대 총책임 이덕구가 사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보도연맹 가입자와 요시찰자 그리고 입산자 가족 등이 대거 예비 검속되어 처형당했고,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사건 관련자들도 즉결처분되었는데, 그 숫자만 약 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의 당위성을 위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정부, 그리고 좌파였다는 이유로 수천의 사람을 처형했던 정부.

아마도 자기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 하에 추진되었을 테지만 그 과정에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인들이 참담한 피해를 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비극적인 사건임이 틀림없기에 그 정부는 반성하고 속죄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4.3사건을 쉬쉬하며 묻어두려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2003년 10월 31일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강제력 행사라고 간략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4.3 사건은 수많은 민간인들을 희생시켰던 국가 지도자층의 일방적인 권력 행사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이나 4.19혁명 때처럼 말입니다.

이제 남한과 북한을 한 번 살펴볼까요?

이승만 정권이 들어선 후 북한에도 김정일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각 미국과 소련의 도움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6.25전쟁 시 정전협상을 할 때 전쟁 당사국 대표로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평화 이야기

이 당시의 당사국은 유엔국 총사령관이었던 마크 웨인클라크 사령관과 조선인민국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참석한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자격으로 참석한 평더화이였습니다.

당시 남한의 지도자였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빠져있었죠.

왜냐하면 이승만 정부는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정전협상을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종전된 상태가 아니고 잠시 전쟁을 멈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총성이 울려 퍼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국방의 의무라는 것을 두어 우리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전 상태는 막대한 군비지출, 남북교류 차단, 안보 불안으로 인한 외국 자본 투자유치의 불리함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우리의 불안한 관계를 보다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북한은 국제법상 금기시 되는 행위를 하지 말고,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멈춰진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남북한 간에 지속적인 대화, 남북단일팀과 같은 스포츠 외교 등 다양한 방법을 다시 동원해서라도 말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충족되어 관계회복이 되더라도 정전협상의 당사국들과 다시 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각 이념이 다른 두 국가의 의견이 충돌되어 합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걸 고려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남북한의 관계회복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청와대 본관 벽면에 한반도의 모습이 크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나라는 본래 하나의 국가였음을 그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 평화 이야기

6.25전쟁이 멈춰진 지 벌써 70년이 다 되어갑니다.

헤어진 이들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새로 이 땅에 태어난 이들은 분단이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잊혀지면 끝나버리는 거죠. 한반도는 3.8선을 기준으로 불안정하게 자리 잡은 각기 다른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글을 보는 여러분들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언젠가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서로 교류를 하고 통일이 된다면 DMZ 인근은 동식물이 평화롭게 쉴 수 있는 터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동식물이, 그리고 지구가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쉼터일테니까요.

언젠가 갈등 없이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있을 우리를 그려봅니다. 자연과 조화되어 만물이 마음 놓고 숨쉴 수 있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평화란 무엇인가요? 지금 평화로우신가요?

| 평화 이야기



임진아

이번 여름은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등에 땀이 흐르는 게 싫어, 백팩 대신 고른
캐리어는 텅텅거리며 공항을 나서고, 서울행
비행기 창가에서 친구들과 기념사진도 찍으며
설레는 추억을 남겼습니다.
알고 지낸 친구도 있었고, 처음 알게 된 친구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연과의 낯설지만 싫지 않은
긴장감으로 몹시 두근거렸던 마음이 기억이
납니다.

제게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임진각 DMZ투어였습니다.
임진각 제3땅굴 안, 작은 땅굴 창 너머, 북녘 땅이 보이는데, 햇빛을
받은 푸른 풀들과 흰 들꽃이 반짝이는 땅굴 너머가 참 신비롭고
예뻐했습니다.

저기가 북쪽일까? 저기가, 북녘 땅일까?

자주 볼 수 없는 풍경이기에, 더 애타게 눈에 담았습니다.

사람이 충분히 걸을 수 있었지만, 탱크가 지나기엔 좁아보인 그 곳은,
군사 시설이라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저 너머엔 또 누군가 살고 있겠지.

중학교 수학여행 길에서 만났던 새터민 부부와, 대학을 졸업하고 만난
북녘 말을 쓰던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제주지부 할머니, 그리고
티비에서 보았던 송해 선생님처럼.

제 눈앞에 있는 막힌 땅굴 벽을 보면서, 이 이상 다가가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땅굴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저 너머로
가보았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은, 발견한 사람들이 부럽다는
생각도 하면서요.

투어가 끝나고 돌아오던 길, 버스를 놓쳐 우연히 방문한 "국립 6.25
납북자 기념관"은 임진각 차부 옆에 있어, 투어를 위해서는 지나가며
건물 이름을 꼭 보게 되는 곳입니다.

시간이 남아 우연히 방문한 곳이라고 하기엔 아쉬울 정도로, 다녀오길
참 잘했다 생각했던 곳입니다. 정치권력 싸움에 의해 벌어진 전쟁
때문에, 삶과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민간인들의 흔적이 담긴
곳이기 때문입니다.

|평화 이야기

제주도에서 4.3 기념관을 갔을 때는, 우리 외할아버지의 생년도를 생각하며, 어쩌면, 하마터면, 할아버지께서도 그때 변을 당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기념관에서 제 고향 마을의 이름이 보일 때마다, 또 친구네 고향, 내가 가본 곳, 아는 지명이 나올 때마다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주도민이라서, 전시관을 나올 땐 모두가 관련 지도자들의 욕을 한가득 내뿔었더랍니다.

관덕정으로 가던 택시 안에서 신랄한 문장들이 오갔습니다.

그런 난리 중에, 마을 사람들을 지키고자 한 사람도 있었고, 공직에 있음에도 용기 내어 쉽지 않은 결정을 해준 영웅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고향마을 역시, 타 지역에 비해 신고를 적게 한 경찰관에 의해 지켜진 곳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도 4.3 희생자 가족이 될 수도 있었고, 운이 좋아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괴로운 기억일지 몰라 차마 그 시절에 대하여 여쭙지는 못했지만, 한 분씩 귀천(歸天)하신 이후로 요즘은 알아야한다는 생각에 점점 할아버지께 과거의 이야기를 해달라 여쭙곤 합니다.

그 시대에 태어나 난을 겪은 사람들은 어쩌면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다른 매체를 통해 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매체를 통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본 어느 병사의 이야기처럼, 전쟁터에서 어머니께 편지를 쓰며 주변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 후 친구들과 후기를 나누다 "통일"과 "통일되지 않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통일되지 않은 미래"를 지지하는 친구는, 우리가 너무 다른 상황에 살고 있다, 이제는 그들과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를 나쁘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나눈 후 오늘날 이 땅엔 통일된 미래를 그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친구의 말을 따라 이미 흐른 시간만큼, 그 수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년인 우리는 앞으로 미래사회를 바꿀 권한과 힘을 가진 중년이 될 것입니다.

|평화 이야기

어쩌면 우리나라는 미래에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분리된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독일"처럼 사소한 계기로 통일을 이룬 나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고, 무엇을 바라며, 어떤 가치관을 키우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득하지만, 우리는 곧 세상을 바꾸는 중심세대가 되겠죠.
과연 미래에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다녀오고 나니 남북을 소재로 다룬 영화들이 눈에 보입니다.
시의적절하게 남북 관계를 다룬 영화가 많아지는 건, 깨달은 걸,
잊지 말라는 뜻이겠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우리가 한 팀이 되어, 여행을 하고 이야기를 나눈 이번 8월은 잊기 어려운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 평화 이야기



민주화발자취24팀은 민주와 평화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4.3평화박물관을 시작으로 다양한 박물관 및 기념관 등을 다녀왔습니다.

본 일정을 통하여 현재의 평화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쓰여졌다는 것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일정을 통하여 현재의 평화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쓰여졌다는 것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위다윤

당시 얼마나 잔혹한 일들이 행해졌으며, 그 일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끔찍한 기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등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바란다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특히 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이 얼마나 어렵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생각 할 수 있었습니다. 일정들을 수행하며 마주했던 다양한 사건 속 지도자들이 단순히 자신의 권력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본인의 생각 혹은 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일으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본인의 반대편에 서있는 사람이 아닌, 무고한 국민들이었다는 점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앞으로의 살아갈 방법을 고민했어야 할 국민들이 살아 남는 방법을 생각하게 만든 지도자들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인간 집단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의 평화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한 존재가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필요한지에 대하여도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여군들의 활약상을 보며, 현시대의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 지에 대하여도 토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외에도 자연을 공유하는 또 다른 존재인 동물들의 평화로운 생애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 평화 이야기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진 현재 한국의 여러 곳들과는 다르게 DMZ는 개발에 제한이 걸려있어 동물들에게는 유일한 쉼터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존재들의 삶을 위협하며 지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본 탐방을 통해 단순히 한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 더 확장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힘겨운 사투 끝에 이룩되어진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 사진첩

불타는 섬

세계의 제노사이드
Genocide in the World

의로운 바람
Righteous Deeds

제주판 아우슈비츠 수용소, 주정공장
The Industrial Alcohol Factory,
an Auschwitz Style Concentration Camp

바다로 둘러싸여
고립된 섬 제주도는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터였다

Isolated Jeju Island ...
A Massive Prison and
Killing Field



| 사진첩



| 사진첩



| 사진첩



